

# 유니클로 이어 데상트도... 'No 재팬'에 투자·채용 올스톱

컬래버레이션, 매장개설 등 취소  
국내 물류센터 제3동 건설 보류  
"3분기 매출 전년비 30% 줄어"

패션업계에 불어닥친 불매운동이 쉽게 사그라들지 않는 모양새다. 최근 10년간 꾸준히 성장세를 보이던 데상트코리아는 하반기에 계획했던 업무에 급제동이 걸린 상태이며, '히트텍 무료 증정 행사'와 '겨울감사제' 등 공격적인 마케팅을 펼친 유니클로 역시 소비자의 마음을 돌리지는 못했다.

데상트코리아는 최근 3개월간 매출 급락을 겪고 있다. 백화점과 대리점 상황을 미뤄봤을 때 불매운동이 본격화된 7월부터 약 40% 가까이 매출이 떨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2000년 국내 시장에 진출한 데상트코리아는 데상트, 데상트골프, 르죄끄스포르티브, 엄브로 등을 라이선스 형식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 10년(2009년부터 2018년) 동안 꾸준



유니클로 매장



유니클로 매장 내부

/손진영 기자 son@

히 성장세(최소 0.24%~최대 31.34% 전년비 신장률)를 유지해왔다. 하지만, 일본 제품 불매운동이 장기화되면서 성장에 급제동이 걸린 상황. 실제로 올해 3분기는 전년 대비 26% 하락세를 보였다.

데상트코리아는 하반기에 진행하려 했던 다양한 컬래버레이션을 비롯해 새로운 매장 개설 계획을 대부분 취소하거나 보류했다. 회사 내부적으로는 국내 물류센터 제3동 건설을 보류했으며, 매년 진행하던 신입공채도 중단했다.

고세키 슈이치 데상트 사장은 "7~9월 한국에서의 매출이 전년 대비 30% 줄었다"며 "상당히 심각한 매출 감소다"라고 말했다.

업계 관계자들은 매출 회복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

불매운동과 함께 데상트코리아를 둘러싼 잡음도 상당했다. 앞서 '한국에서 거둔 이익의 대부분이 일본으로 돌아간다'는 이야기가 온라인상에 퍼진 것. 이에 대해 데상트코리아 측은 "배당금은

업계 평균 수준인 10% 정도"라며 "수익 대부분은 물류센터와 R&D 센터 설립 등 한국에 재투자하는 데에 쓰인다"고 밝혔다. 이어 "불매 운동으로 인한 현재 상황이 안타까운 것은 사실이나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를 타개할 계획은 따로 없다"고 전했다.

반면, 유니클로는 앞서 발열내의인 히트텍을 무료로 증정하는 공격적인 마케팅을 펼쳤다. 하지만, 매출 회복에는 오히려 역효과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1일 더블어민주장 박광은 의원이 국내 8개 전업 카드사(삼성·신한·KB국민·현대·롯데·우리·하나·비씨)의 신용카드 매출액 현황을 분석한 결과, 유니클로의 지난달 15~20일 신용카드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69.6% 감소한 95억원으로 나타났다. 20일까지의 전체 월 매출도 64.5% 줄어든 206억원에 그쳤다. 히트텍 무료 증정 행사가 진행된 15~20일 매출액이 가장 많이 급감한 것이다. 일부 오프라인 매장에 사람이 몰리면서 일본 불매운동이 사그라들었다는 이야기가 오르내렸지만, 실제로는 아니었던 것.

업계에서는 여름 동안 불매운동 이슈에 조용한 행보를 견딘 유니클로가 성수기인 겨울을 맞아 적극적인 마케팅을 펼치면서 오히려 반감을 산 것이라 분석을 내놓고 있다. 전례없던 증정 행사에 일부 고객들의 발걸음을 돌리는 데는 성공했지만, 더 많은 소비자들로부터 반감을 굳혔다는 것이다.

/신원성 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CJ로킨이 중국 우수 물류기업과 물류혁신기업에 선정됐다. 윈난성 쿤밍에서 열린 '제 17회 중국 물류기업가 연례회의' 시상식에서 CJ로킨과 다른 수상기업 대표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CJ대한통운

## CJ대한통운, 자회사 통해 中서 물류 호평

CJ로킨, 中 연례회사 2개 부문 수상

CJ대한통운이 자회사를 통해 중국 시장에서 물류 혁신 기술에 대해 호평 받고 있다.

CJ대한통운은 CJ로킨이 '제 17회 중국 물류기업가 연례회의'에서 '2019 중국 우수물류기업'과 '2019 중국 물류혁신' 두 개 부문을 수상했다고 2일 밝혔다.

CJ로킨은 물류공급망과 고객 서비스 품질을 지속적으로 개선해왔으며 맞춤형 SCM 전략 컨설팅 솔루션과 CJ대한

통운 고유의 첨단 TES(Technology, Engineering, System&Solution) 물류 기술 역량을 중국 현실에 맞게 최적화함으로써 고객에게 최적의 물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아울러 최근 TES 핵심 기술 등 스마트 물류 분야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강소성 타이창, 산둥성 린이등에 대규모 지능형 물류센터 건설하는 등 중국 물류 산업계에서 첨단화, 지능화의 외연을 확장하는데 기여하고 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받았다. /김승호 기자 bada@

## 넥슨, 네코제 누적관람객 1.3만명 기록

넥슨은 지난 11월 30일과 12월 1일 이틀간 경기도 성남시 판교 사옥에서 개최한 여덟 번째 네코제(넥슨콘텐츠축제)가 누적 관람객 1만3000명을 기록했다고 2일 밝혔다. 네코제8에는 만화·소설, 개인상점, 코스튬 플레이, 아트워크 등 네 개 분야에 99개 팀 151명의 유저 아티스트가 참가했다.

또, 마비노기, 마비노기 영웅전, 메이플스토리, 엘소드, 천애명월도, 클로저스, 테일즈위버, 메이플스토리M 등 8개 팀도 부스를 꾸려 관람객을 맞았다. 홍보실 직원들로 구성된 판교 베틀시장 팀이 만든 티셔츠 200장은 행사 시작 5

시간 만에 완판됐다.

특히, 신규 던전 등 겨울 업데이트 단서가 담긴 쪽지를 공개한 마비노기 부스를 비롯해 메이플스토리 속 세계를 그대로 옮긴 듯한 핑크빈 하우스와 예티 더 카페(CAFE)는 1시간이 넘는 입장 대기열이 발생하기도 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이 후원하고 사내 문화예술 체험 프로그램 넥슨포럼이 협업한 원데이클래스는 엘소드·메이플스토리 아토토이 등 2차 창작 과정과 클로저스 김하루 성우와 함께 실제 게임 대사를 녹음하는 체험 과정으로 진행됐다. /김나민 기자 silkni@

## 스타트업 참여하니 분리배출 수거율 68%↑

오늘의 분리수거, IoT방식 솔루션 앱으로 잘못된 분리수거 방식 개선

우리나라 재활용 쓰레기 분리수거 참여율은 세계 2위에 달한다. 그럼에도 환경부에 따르면 종량제봉투 폐기물의 53.7%가 분리배출해서 재활용할 수 있는 종이·플라스틱·금속 등이다. 분리수거된 물품의 80%는 잔재 폐기물 처리되기도 한다. 이처럼 골치 아픈 쓰레기 분리수거 문제를 스타트업들이 해결하기 시작했다.

2일 업계에 따르면 오이스터에이블·수퍼빈 등 재활용 쓰레기 문제에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고 나선 스타트업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오늘의 분리수거'는 오이스터에이블이 만든 사물인터넷(IoT)방식의 분



오이스터에이블의 스마트 IoT 분리수거함 'WeBin'과 모바일 앱 '오늘의 분리수거' /오늘의 분리수거 홈페이지

리수거 솔루션이다. 오늘의분리수거는 스마트 IoT 분리수거함과 모바일 앱을 이용해 잘못된 분리수거 방식을 개선하고 보상을 제공한다. IoT 분리수거함 '위빈(WeBin)'에서 모바일 앱의 사용자 QR코드와 분리수거 물품의 바코드를 스캔한 뒤 쓰레기를 넣으면 포인트 등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이 포인트로 제휴처에서 할인 받거나 앱 내 채널에서 직접 소핑할 수 있다. 위빈에 모인 재활용품은 설치장소와 지자체 협의로 회수처를 정한다.

아파트 주거단지·관공서·주민센터·대형마트 등 전국 다양한 장소에서 182대의 위빈이 분리수거 물품을 수집하고 있다. 오이스터에이블은 오늘의분리수거 솔루션으로 시민 참여를 촉진해 분

리 배출 수거율을 68% 증대했다. 오이스터에이블은 오늘의 분리수거 솔루션으로 분리배출 양이나 회수 시기 등을 모니터링할 수 있어 관리효율이 높아진다고 설명한다.

오늘의 분리수거가 바코드로 각 물품을 구분한다면 수퍼빈은 AI로 분리수거 물품을 직접 구분한다. 수퍼빈의 AI 재활용 자판기 '네프론'은 분리배출된 물건을 스스로 인식해 보상까지 제공하는 기계다.

깨끗한 분리수거 물품을 수퍼빈 자판기에 넣으면 AI 물품을 인식한 뒤 거기에 맞는 포인트를 제공한다. 인공지능 기반 선별과 폐기물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해 물품이 관리되며, 수거된 물품은 네프론이 알맞은 형태로 압착 및 수거한다. 행사·축제·페스티벌 등 단기적으로 폐기물이 많이 발생하는 장소에 대여할 수 있는 이동형 네프론인 수퍼큐브도 있다. 현재 약 75대의 네프론이 전국에서 쓰레기를 모으고 있다. 네프론 한 대가 캔과 페트병은 3000개, 빈 병은 200개까지 저장할 수 있다.

수퍼빈은 단순히 리워드를 제공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재활용도 높이가 될 수 있다는 인식을 퍼뜨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배한님 기자 ericabae1683@



수퍼빈의 AI 재활용 자판기 '네프론' /수퍼빈 홈페이지

## “네이버 앱으로 국민연금 신청·납부하세요”

네이버(주)-국민연금공단, 업무협약

네이버(주)는 11월 29일 국민연금공단과 모바일 전자 고지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MOU를 체결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MOU를 통해 양사는 ▲네이버 플랫폼에서 다양한 국민연금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네이버 앱을 통해 국민

연금 신청부터 신고, 모바일 납부까지 한 번에 가능하게 하는 등 사용자 편의성을 증진시키고 다양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상호협력하기로 했다.

양사는 2020년 3월 중 모바일 네이버 기반의 연금 서비스를 선보일 계획이다.

특히 이번 MOU는 네이버가 지난 11월 2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IC

T 규제 샌드박스를 승인 받은 이후, 이를 활용해 체결하는 첫 MOU라는 점에 의미가 있다.

네이버는 올해 공인전자문서증계자로 지정되고 '행정·공공기관 고지서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를 규제 샌드박스 승인 받아, 한층 다양한 기관에서 발송하는 통지서 및 고지서를 사용자에게 전달할 수 있게 됐다. /구서윤 기자 yuni2514@